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

[골 1:19]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모든 충만’이라는 말은 ‘신성(神性)의 충만’을 가리킨다. 골로새서 2:9, “그 안에는 신성(神性)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적 속성들 중의 한두 가지를 가지셨거나 하나님과 비슷한 모양 정도가 아니셨고, 신성의 모든 충만을 가지신 자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다(요 1:1; 요일 5:20). 그는 하나님의 아들 곧 신성(神性)을 가진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실 수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케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요 화목의 십자가이었다. 우리의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원수 되게 만들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케 된 것이다. 로마서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레위기 17:11의 말씀대로, 사람의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흘림을 통해 죄가 속해진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22는 “피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말했고 예수께서는 자신이 흘리실 피를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표현하셨다(마 26:28).

화목의 대상은 만물이며, 그것은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포함한다. 사람의 죄로 인하여 땅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고(창 3:17),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지금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고(롬 8:20-22) 또 창조주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 비인격적 생물의 세계나 물질 세계가 하나님과 화목케 된다는

것은 이상한 표현이지만, ‘화목한다’는 원어(아포카탈 랫소)가 ‘원상 회복시킨다’는 뜻을 가지는 것을 알면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의 죄의 결과는 모든 피조물에게 미쳤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의 결과는 온 우주에 미친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5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였다.

물론, ‘만물’이라는 말은 타락한 천사들과 회개치 않은 악인들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께서는 마태복음 5장 이하에 기록된 산상 설교에서 넓은 길로 가는 자들이 좁은 길로 가는 자들보다 많고 그 결과는 멸망이라고 가르치셨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염소들, 곧 주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던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마 7:13-14; 25:41). 영생의 구원에서 제외될 자들이 확실히 있을 것이다.

[21-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곧 화목 사역의 일차적 대상은 사람들이다. 그 화목 사역은 죄인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악한 행실들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좋아하지 않았고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도 않았다.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켰고 사람과 하나님을 원수 되게 만들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화목케 된 것이다.

화목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곧 예정과 선택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셨다(엡 1:4-5).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다(요 19:30).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가 이루신 속죄사역의 효과가 우리에게 적용되었다.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간주되었다. 이것이 법적의(義)이다. 구원의 목표는 달성되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장차 다 영화롭게 변화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되는 것이며 그가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이루셨다. 물론, 법적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말고 헛된 세상 것들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 그는 이제 죄의 도구가 아니고 의의 도구로, 세상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롬 6:13).

[23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증거는 믿음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화목 사역의 효력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적용된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에 거하고 견고히 서고 복음 안에서 주신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믿음은 사도들을 통해 전파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 생긴다. 전도는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기 시작했다. 신약성경은 사도들을 통해 전파된 복음의 내용을 증거한다. 2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전도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기초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 사람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을 읽고 복음을 묵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 사역을 깨닫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성경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준다(딤후 3:15).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죄인들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사람의 범죄는 사람을 하나님과 불화(不和)하게 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사람의 가장 큰 불행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며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다. 복음은 화목의 메시지이다. 죄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둘째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한다. 믿음은 곧 구원과 하나님과의 화목과 영생의 길이다. 그러나 불신앙은 곧 사망이요 영원한 멸망이다. 그러므로 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

셋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한 자답게 살아야 한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 곧 하나님과 원수 되어 있었을 때, 세상의 헛된 것들 곧 돈과 육신적 쾌락과 세상 권세와 명예 등을 위해 살았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것들이 헛되고 죄악되며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였고 또 현재의 모든 죄악된 성질과 습관을 고백하였고 미워하였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짓음과 의롭다 하심과 영생을 얻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답게 또 천국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고 진실하게만 살아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다섯째 나팔

[계 9:1]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많은 주석가들은 이 별을 사탄 혹은 타락한 천사로 보고 어떤 이들은 정반대로 거룩한 천사로 본다. 그러나 이 별을 말 그대로 하늘의 별로 보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본다. 넷째 나팔까지도 문자적으로 해석했듯이, 다섯째 나팔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 보인다. 이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NIV)고 한 것은 별이 땅에 떨어져 큰 구멍을 낸다는 것을 표현한 말이라고 본다. 하늘에서 큰 별이 하나 떨어지면 지구에 큰 충격이 생기고 땅 깊은 곳으로부터 구멍이 뚫어질 것이다. 무저갱(아뷔소스)은 지옥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땅속 깊은 곳'을 가리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권한과 허락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천체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지구와 소행성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말해왔다. 소행성이란 화성과 목성 사이에서 태양 둘레를 공전하는 수십만개의 작은 별들을 가리키며 지구에 근접하는 것들로서 지구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은 240개 가량이라고 한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2002 NT7이라는 소행성은 직경이 2km로 추정되며 초속 약 28km(시속 약 10만km)로 달리고 있는데 2019년 2월 1일에 지구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다. 그것의 충돌 충격은 히로시마에 투하됐던 원자폭탄 2천만개의 위력이며(미 우주항공국 NASA 제트추진연구소에 의하면, 그것은 TNT 100만 메가톤[1조톤]의 폭발 충격일 것이라고 했다) 그때 엄청난 먼지 구름이 대기권을 덮으므로 태양을 가려 1년 이상 겨울이 지속될 것이며 또 충돌 지점의 국가들이 초토화되는 것은 물론, 대규모 해일이 일어나고 오존층이 파괴됨으로써 2년간 자외선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생물체들에 돌연변이와 암과 백내장 등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하였었다.)¹⁾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다. 그러나 그런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2-3절]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런 별로 인해 뚫어진 땅속에서는 큰 풀무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오고 그 연기로 인해 해와 공기가 어두워질 것이다. 그것은 역사상 유래 없는 심각한 대기 오염 사건일 것이다. 또한 그 연기 가운데로부터 황충들 혹은 메뚜기들이 올라올 것이다. 이 황충들은 문자 그대로 땅속에서 올라온 특별한 생물들로 볼 수 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들 중의 하나를 위해 준비된 해로운 생물들일 것이다.

[4-6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쓸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 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앞장에서도 나무와 풀, 바다, 고기, 배, 강과 샘, 해와 달과 별들 등을 다 문자적 의미로 보았듯이, 본문의 땅의 풀과 나무도 문자 그대로 풀과 나무로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황충 재앙은 자연 세계에 내리는 재앙이 아니고 이마에 인 맞지 아니한 자들, 즉 주 예수 그

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다. “하나님의 인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은 재앙에서 면제됨을 보인다. 하나님의 이 재앙은 차별적 재앙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들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였던 고센 땅에는 내리지 않으셨던 것과 같다. 시편 91:1-3, 5-7,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열병[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열병과 백주[낮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네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황충 재앙은 다섯 달 동안 고통을 주는 재앙이다(5, 10절). 황충들은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로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이다. 전갈은 쏘는 독을 가진 생물이다.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에게 다섯 달 동안 이런 전갈의 쏘는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을 것이다.

[7-10절]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홍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戰場)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황충들은 보통 메뚜기들과 달랐다. 그것들은 전마(戰馬)들처럼 기동성이 있고 그들의 활동은 승리적이고 사람 같은 지혜를 보이고, 사자 같은 잔인함을 나타내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두려울 것이다. 그것들은 마지막 환난 날을 위해 준비된 생물들이라고 보인다.

[11-12절]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無底坑)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사탄은 그 황충들의 왕이다. 아바돈, 아볼루온은 ‘파괴자’라는 뜻이다. 그것은 사탄에게 해당되는 명칭이다. 사탄과 악령들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하여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와 신약교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파괴하는 파괴자이다.

1) 조선일보, 2002. 7. 25, 14쪽; 7. 27, 11쪽.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나라와 교회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두 가지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세상의 재앙이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섯째 나팔 재앙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줌으로 이루어졌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게 하시고 그에게 열쇠를 주실 수 있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는 재앙을 주기도 하시고 주지 않기도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의로운 옴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내가 모태에서 적신(벌거벗은 몸)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 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 이다”라고 말했고 고난 중에 범죄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고(옴 1:21-22).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사 45:6-7).

둘째로, 우리는 재앙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황충 재앙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들에게만 주는 재앙이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고통을 주지 못할 것이다. 또 그 재앙은 다섯 달 동안만 계속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재앙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정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의 뜻만 행하며 그의 편에 서서 참고 기다려야 한다.

수요일 설교

예루살렘의 회복

[속 8:1-3]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하나님께서서는 시온을 위해 크게 질투하시며 그를 위해 크게 분노하심으로 질투하셨다. 시온의 회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에서 시작된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시다.

하나님께서서는 시온에 돌아오셨고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그는 구원자이시다. 그가 거기 거하시는 것은 시온을 사랑하시는 표이다. 그가 70년 동안 그 성을 황폐케 하셨지만, 다시 돌아오셔서 그 성으로부터 재앙을 거두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본심(本心)이 그러하시다. 그는 그의 긍휼로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회복된 성, 예루살렘은 이전과 다를 것이다. 전에는 그 성이 거짓으로 찬만했으나, 후에는 진리로 찬만하

고 진리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성읍이 될 것이다. 또 전에는 그 성이 죄악되고 불결했으나, 후에는 죄가 없고 거룩과 의와 선으로 찬만한 거룩한 산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회복된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의롭고 선한 사람들의 거주지가 될 것이다.

[4-6절]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돌아와 거하심으로 진리의 성읍과 성상이 될 예루살렘 성은 거민이 많아질 것이다. 이와 같이, 회복된 예루살렘 곧 신약교회에는 남녀노소의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신약교회의 설립과 변창, 특히 이방인들의 구원은 우리가 보기에도 기이한 일이다.

[7-8절]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서서는 그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해 내시고 인도하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다.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일은 진리와 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엡 1:13; 롬 10:4).

[9-13절] 만군의 여호와와 말하노라. . . .

하나님께서서는 그 남은 백성에게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하신다(9, 13절). 그들은 두려워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야 할 것이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예루살렘 성의 회복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 질투하시고 긍휼히 여겨 구원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로 이루어졌다.

둘째로, 예루살렘 성은 진리의 성읍이 되고, 거룩한 산(聖山)이 될 것이며,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며 남녀노소의 사람들이 그 성에 많이 거하게 될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 관계의 회복은 진리와 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그 성에는 평안이 있을 것이며, 그 성은 이방 가운데서 복이 될 것이다. 이 모든 회복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신약교회에서 이루어졌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9절),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13절)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8:20,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15:58,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 우리는 굳센 마음으로 예수님 믿고 순종하고 충성해야 한다.